

## 롯데기공, 국내 최초 캔&Pet 음료자동판매기 출시 PET 음료 시장 확대에 대응 가능해져



롯데기공(대표:신영재)이 국내 최초로 캔음료와 PET음료를 병행 판매할 수 있는 LOTTE 캔&PET 음료자동판매기(모델명:LVP-531)를 출시했다. '드디어'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PET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는 오랜 산업계의 숙원이었다. PET음료에 대한 시장인기가 높아져 이를 적용 판매할 수 있는 음료자동판매기에 대한 필드의 니즈는 증가해 왔다. 롯데기공은 필드의 이런 니즈를 반영, 심혈을 기울인 기술 개발을 진행한 끝에 이번 출시를 진행하게 되었다.

이 제품은 PET 8종류와 캔15종류의 판매가 가능하고, 시원한 음료와 뜨거운 음료의 겸용 판매가 가능하다. 판매수량은 PET 160개, 캔369개로 대용량을 자랑한다. 소형 슬림 병 음료까지도 판매 가능해 전천후 음료자판기라 할 수 있다.

슬림화되고 모듈화된 단순한 구조의 최신 설계가 이루어진 것도 큰 특징이다. 고객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품투출구를 대형화시켜 상품 꺼내기가 한결 수월하게 했다.

냉각성능의 강화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. 2COMP/3EA 채용으로 안정적이고 우수한 냉각성능을 자랑한다. 또 신개발 PET반출기를 채택했고, 내후성 도료를 사용해 오랜 수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.

디자인에 있어서도 대형 상품창 채택, 간결한 디자인과 색상을 통해 시원스러운 느낌이 한껏 묻어나게 했다. 제품 규격은 1,120(W)X1,830(H)X830(D)mm이다. 제품의 소비자가는 6,500,000원에 책정되었다.

롯데기공은 음료업체와 더불어 서울역, 일산 호수공원 등에 이 자판기를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. 소비자들의 PET음료 구입비율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. 이번 PET음료 대응 기종의 출시로 인해 음료자동판매기 시장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